

94년 두레방 기지촌활동 제안서

94년
10월
10일
김영진

주 는 이 : 두레방
받 는 이 : 각 학교 기활 책임주체
작 성 일 : 자주 민주 통일진군 50년

1. 들어가며

1990년부터 시작한 기지촌활동(이하 기활)은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합니다.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는 기지촌활동은 조국과 민중을 사랑하는 청년 학생들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미군기지과 기지촌의 실태, 기지촌 매대촌 여성들의 살등을 접하면서 식민지 조국의 현실을 몸으로 느껴왔던 활동입니다.

그동안 기지촌활동은 참으로 많은 성과를 남겼습니다. 기지촌활동을 통해 기지촌문제를 절감하고 기지촌현장에서의 활동을 결의한 후에 지금까지 활동해 온 사람들은 10여명에 달하며 자원활동이나 후원사업등의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뿐만아니라 기지촌활동을 통해 두레방이나 참사랑심터등의 단체들은 많은 도움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는 학생들과 기지촌여성들과의 만남속에서 이루어져왔습니다. 기지촌여성들은 자신감과 이웃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해나갔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편견과 무지를 깨닫고 인간에대한 무한한 애정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1990년의 첫번째 기활은 개인적으로 두레방을 알고 있거나 기지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화여자대학교의 학생들에 의해 의정부두레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사이에 기지촌여성운동이 알려지고 그들에 의해 현장에 대한 지원사업, 특히 두레방방판데와 동아방과 곰부방 자연활동등의 사업들이 활발하게 펼쳐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1년에는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각 학교 과단위 학생회나 여성학회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모여 준비하였고 의정부두레방과 동두천두레방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활동에 참여한 학교들의 학생회가 활성화되고 여학생회가 조직되거나 강화되는 등의 성과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기활의 활동내용과 성과들이 알려지면서 1992년도에는 서여대협과 수여대협이 그러한 모범을 받아안아 여대협차원에서 기활을 제안하여 준비하고 수행하였습니다. 1992년 기활은 본격적으로 기활이 여학생운동의 한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과 두레방에서만 진행되어 모던 기활이 참사랑심터가 있는 송탄에서도 진행되었다는 것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수 있습니다.

1993년에는 여대협에서 더 열심히 준비하여 활동하였고 매대촌관련단체인 한소리회와 연대하여 두레방(의정부, 동두천), 참사랑심터(송탄), 다비타의 집(동두천), 막달레나의 집(용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기활은 학생들의 방학을 이용한 중요한 활동이 되었고 기지촌의 여성들이나 주민들도 여름이 되면 기활학생들을 기다리는 명실상부한 지역운동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한기현

각주자의 장래에 복속하는 내용
1) 두레방의 기지촌 여성
2) 동년-각주들
(EU 민중연대 사업을
중여아나 라방자 라는 자)
학생들 도움
내용들이 배배줄을 취지
감을 수 있도록 실장하는 것
-각주에 대주사업의 양방향
안정화 시키는 문제

청년학생들의 힘과 노력으로 일구어져 온 기활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습니다.

2. 기지촌활동의 의의

1) 기활은 청년여학무들과 기지촌여성들이 서로의 삶에 변화를 주는 활동입니다.

학생들은 기활에 참여하면서 기지촌여성들과의 만남을 통해 대대촌여성들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을 깨고 기지촌여성들의 삶을 통해 이 땅에서 억압 받고 고통 받는 민중의 현실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기지촌여성들 또한 건강하고 자주적인 삶을 살고자하는 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람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고 자신들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기활은 기지촌여성들과 여학생들이 서로의 삶에 상호침투하여 서로를 변화, 발전시키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2) 기활은 지역운동의 기반을 넓히는 활동입니다.

기지촌은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고립되고 소외되어 있습니다. 기지촌에 모여 드는 사람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 온 사람들이며 기지촌에 들어 와서도 기형적이고 기생적인 경제구조와 퇴폐문화로 인해 굴절된 삶을 강요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활은 기지촌여성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지촌의 주민들까지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3) 기활은 기지촌의 지역단체와 학생과의 일상연대사업의 단초를 마련하는 장입니다.

기활은 방학에 잠깐 하고 그치는 활동이 아닌 일상적 연대활동을 통해서만 서로의 조직강화에 복무할 수 있습니다.

1993년 여름에 의정부두레방에서 기활을 하였던 연세대학교의 천문대기학과에서는 기활에 참여한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 과에서 후원회를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1993년 겨울에 역시 의정부두레방에서 기활을 하였던 경희대 총여학생회에서는 총여학생회 차원에서 80여명의 후원회원을 모집하여 지속적으로 두레방후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 기활은 기지촌운동을 하는 지역단체 실무자들을 변화시키고 추동할수 있는 장입니다.

현재 두레방을 포함해 기지촌에서 활동을 하는 단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도 실무자들이 모두 올바른 관점에서 활동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활을 통해 학생들의 집단의 힘과 지혜로 기지촌 지역단체 실무자들에게 그들이 올바른 관점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볼수 있도록 평가 작업을 함께 합니다.

5) 기지촌운동의 불모지인 미군기지주변지역을 하나씩 개척해 가는 기활이어야 합니다. → 자율투쟁까지도

6) 기활은 기지촌운동의 활동가를 배출하는 장입니다.

현재 두레방에서 활동하는 실무자들은 모두가 기활에 참여한 후 자신의 전망을 기지촌 여성운동으로 결의한 사람들입니다. 기활에 참여하는 고학번 여학무들은 자신의 전망을 세울때 기지촌 여성운동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다.

3. 기지촌활동에 임하는 자세

1) 기지촌여성은 이땅에서 가장 억압 받고 고통 당하는 민중이라는 관점을 견지해야 합니다.

기지촌의 민중과 청년여학무들의 만남은 주체와 주체의 만남이므로 결코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가르치거나 계도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들은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닌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로써 이땅의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민중입니다.

2) 기지촌여성과의 만남에서 조급한 태도를 버려야합니다.

기활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누구나가 기지촌여성들과의 만남에서 많은 것을 얻으려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아픈 과거를 털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학생들에 대해 신뢰감을 갖기도 전에 조급하게 그들의 살아 온 이야기나 현재의 생활에 대해 묻게 되고 본의아니게 여성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일주일간의 활동기간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서둘러 성과를 남기고 싶어해서는 안됩니다. 진정으로 기지촌여성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생각하는 자세를 견지하도록 합시다. * 명상

3) 현장에서 활동하는 실무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항상 긴장된 자세이면서도 또한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모습으로 임해야 합니다.

기활 전에 현장 실무자들로부터 받는 교양에서 언급되는 기지촌 여성들이나 주민들을 만날때 주의해야할 사항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한 사람의 큰 실수가 전체 기활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과 대화할 때 항상 긴장된 자세로 실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너무 소극적인 태도로 대하면 도리어 가까워 지기가 힘이 들수도 있기때문에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면서 자신의 활동이 기지촌여성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활동에 임하는 자세 또한 중요합니다.

4) 기활의 사전준비활동에서 본활동까지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정착되어 있는 두레방에서 기활을 하는 학생들은 가끔 기존의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에만 매몰되어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활동내용을 고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지촌활동의 수준과 내용이 수행되는 지역이나 단체마다 다르기때문에 그만큼 사전준비활동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학생들이 더 많이 고민하고 준비할수록 성과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4. 94년 기지촌활동의 목표

- 1) 기지촌활동가를 배출한다.
- 2) 두레방과 학생회의 조직강화를 이루어낸다.
- 3) 기지촌활동과 학생들과의 만남들속에서 현장출신 실무자들이 더욱 발전할수 있도록 한다.
- 4) 『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에 대한 지원사업을 전개하여 조직이 강화될수 있도록 한다. *→ 1000명 이상의 학생*
- 5) 지역별목표
 - 의정부두레방 - 기활이후 후원사업으로서 방판매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하여 더 많은 기지촌여성들이 방프로그램에서 일할수 있도록 한다.
 - 동두천두레방 - 기활을 계기로 공부방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회원들과의 관계도 발전시킨다.

1000명 이상의 학생
 지원 목표
 학생들의
 대외 활동

5. 활동내용

· 의정부두레방

- 10:00-10:30 회의
- 10:30-13:00 놀이방
- 13:00-14:00 공동식사
- 14:00-15:00 회원과의 만남(월-목), 성교육(금)
- 15:00-18:00 공부방
- 18:00- 부대방문, 클럽방문, 평가, 운동본부강연, 회원집방문

· 동두천두레방

- 11:00-13:00 공부방(미취학아동)
- 13:00-14:00 공동식사
- 14:00-17:00 공부방(취학아동)
- 17:00- 부대방문, 클럽방문, 평가, 운동본부강연, 회원집방문

- 기활 마지막날 마을잔치를 연다.
-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의 미군범죄 추방캠페인에 참여.
- 『평택시민모임』의 김용한씨의 『미군기지과 범죄』를 주제로 한 강연 1회 개최.
- 미국에 있는 회원들에게 편지쓰기. (자매 편지)